

# 현대인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와 그 도덕적 문제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 주제분 류

윤리학, 응용윤리

## 주 요 어

죽음의 의미, 생명의 끝,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다운 죽음, 자살의 문제

## 요 약 문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두려워 하지만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생명의 종말인가? 시간의 종말인가? 희망의 종말인가?

상실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관한 공포와 불안과 연관된다. 죽음과 임종에 관한 걱정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심각하다. 그러나 죽음을 통한 상실은 성숙으로 이끌 수 있다. 죽음의 인식은 매일의 삶을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죽음과 친숙함을 잃고, 죽음과 무관하게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감각을 잃게 된다. 죽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다. 죽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죽음은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도록 우리를 돕는 지적 도덕적인 대전환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삶이 없는 인간다운 죽음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내재적 한 부분이다. 죽음은 생명에 그리고 인간존재 자체에 속해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덧붙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죽음이란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하지 못해 죽음과 직면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생의 종국이라기보다는 모든 생의 국면과 결정에 동참하는 생의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 1.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는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이며 그리하여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죽음이며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어떤 이유에서든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먼저 떠나기 때문에 죽음이 도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육신에 극심한 결함이 있어 그곳에 더 이상 거처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것일까? 혹은 피치 못할 생물학적인 생명의 필연적 종말이라 간주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경우 자연적 노쇠사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요절을 구별해야 하는가? 혹은 인간의 자기동일성의 종말이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 단지 비존재 속으로 분해되는 것이나, 혹은 단지 ‘이곳에 그리고 지금 있음’이 끝나는 것, 즉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개별적인 일정한 존재로 현존함이 끝나고,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 형태로 옮겨가는 것일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후의 생명에 관련된 죽음의 체험에 관해 도대체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다는 칸트의 판단은 철학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통찰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런 존재에 관한 그 어떤 인식도 자연과학적 논증력을 얻을 수 없다. 사후의 생명에 관한 증명은 그리하여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 “가능한 체험의 영역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려는 모든 추론들은 기만이며 근거 없다.”<sup>1)</sup>

그러면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 영구한 생명에 대한 반대증명 역시 우리의 체험의 지평을 넘어선다. 대문 뒤를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죽음은 시간적 현상의 종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제거하자마자 종말은 더 이상 없으며, 이 단어는 모든 의미를 잃는다.”<sup>2)</sup> 그리하여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객관적으로 오게”될 것이나, “주관적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sup>3)</sup>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 의식의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폭넓게 사용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우선 생물학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죽음은 문화 형태나 종교적 전통, 과학적 지식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유기체의 특징이 되는 신체구조의 파괴” 혹은 “신체적 총체성의 상실”과 같은 여러 형태의 의미를 포함한다.

여러 문화권에서 죽음은 자연적인 불가피한 삶의 종말인 동시에 저승에로의 여행으로 간주되어, 사후(死後)에 지속되는 삶의 세계에 대해 여러 형태로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후에 지속되는 삶에 대한 종교적 상상(想像)도 의학적 의미의 사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종교이론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삶은 지속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통해서도 혹은 종교를 통해서도 죽음이란 육체적 지속성이 끝나고, 생명이 돌이킬 수 없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뇌사와 같은 정의는 의학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일반인들은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죽음은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

1)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B 670.

2) A.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Saemtl. Werke, ed. Huebscher, 2. Aufl., Wiesbaden, 1946-1950. Bd. 6, 553 쪽

3) 같은 곳, 557 쪽.

실을 의미한다. 호흡이 멈추면 몸은 이미 생명이 없어진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생각된다. 시체는 바로 차가워지고,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어 접근을 꺼리게 되며 거리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죽음은 신비한 것으로서 경외심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죽은 자는 단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성시되어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함부로 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더 이상 비난이나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죽었음, 죽음, 죽어 가는 것

“죽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개의 조직세포가 분해되고 재생 능력이 쇠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는 반면, “죽음”이란 하나의 인격체의 삶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회적(一回的)인 사건을 의미한다. “죽어 가는 것”은 점차로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이 쇠약해져 소멸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일정한 “순간”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는 소생이 가능하다. 심장, 허파, 간, 신장, 담낭 그리고 뇌는 서로 다른 일정한 시간 내에 기능을 멈추며, 이러한 기관 중의 어떤 것은 다른 기관들이 기능을 멈춘 후에도 예를 들어 심장마사지와 같은 적당한 조작을 통해 혹은 인공 심폐소생장치를 이용해서 계속 생명과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반면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죽음의 순간 이후 죽음의 상태는 부단(不斷)한 지속성을 지니며 연장되는 것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따라서 죽음을 되돌이킬 수는 없다.

한 인간이 죽는 시점은 언제일까 하는 물음에는 세 가지의 사실, 즉 사망시간과 사망주체, 사망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충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러한 조건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삶과 죽음의 밀접한 연관에 있다: 하나의 인간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면, 죽었다는 것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에피큐로스가 죽음은 무(無)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은 죽었음으로서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였던 것이다.<sup>4)</sup> 죽었음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음을 말하며, 죽음이라는 표현은 생명의 끝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며, 이러한 끝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어 가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의 구별은 양쪽 표현이 모두 같은 사건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표현의 경우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는 사건을 생각하며, ‘죽어 가는 것’의 경우 대개 확장된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경계로서의 죽음

생명을 순환적이며 원형적인 것으로 보는 동양문화와 달리 서구문화에서 임의의 한 사람의 존재는 일정한 시점에 시작하고 시간의 경과 속에서 지속되며, 일정한 시점에서 죽음으로 끝나거나 이 시점을 넘어 불멸의 어떤 형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간 생명은 하나의 육체에, 하나의 단일성에 결합되어 있다.

죽어 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생명의 종말로서 죽음이 생명의 경계를 긋는다는 상상은

4) S. Freud, *Zeitgemässes ueber Krieg und Tod* 341쪽, in: ders., *Gesammelte Werke*, Bd. 10, Frankfurt a. M. 1969, S. 323-355. Diogenes Laertius, *Leben und Meinungen berühmter Philosophen*, X. 124., Hamburg 1990.

어렵다. 왜냐하면 경계는 생명과 죽음의 진행과정을 끝내는 선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분명 경계, 즉 생명의 경계이다. 죽음의 이쪽 편은 한 인간의 생명이 있으며, 저편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을 찾는 일은 불가피하다.

언제 한 존재가 살기를 멈추는지 알면, 언제 그것의 죽음이 도래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이 무엇이고 그 후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죽고 난 후에는 결코 생명에로의 회귀는 없다. 모든 인간은 실제로 한 번만 죽는다. 하나의 인간은 죽은 후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살 수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제구성원의 전반적 가치평가의 일치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관되는 문제이다.

### 3) 죽음의 확인

죽음이란 의학적으로는 심장순환기의 재생 불가능 및 호흡의 정지와 더불어 중앙신경조직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이어서 곧 모든 장기의 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사망의 확인은, 언제 심장순환기의 기능이 멈추었는가, 응급조치를 통한 소생이 불가능한가, 혹은 사망의 조건이 되는 징표들을 의사가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사망판정이 난 사람”이 치료조치를 통해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은 “이미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은 되돌이킬 수 없다”는 죽음의 정의에 비추어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한 확인의 경우 아직 치명적이지 않은 호흡 혹은 심장순환기의 정지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을 뜻할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죽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죽음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사망진단에 있어서 오진이 있었을 따름이다.

뇌 전체, 뇌의 일부분 혹은 심장호흡순환기의 기능이 정지됨은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거나 예측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경험적, 생물학적-의학적인 표시나 징후로 인간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모든 기관과 조직의 죽음, 즉 신진대사, 성장, 생식, 운동, 감수성 등 모든 생명의 징후의 상실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아주 극심한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이 동시에 죽는 것은 아니며, 모든 세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죽음의 과정”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최종적 종말, 즉 전체로서의 유기체의 해체를 알리는 증세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다시는 회복될 수 없으며, 또한 예견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세포가 소멸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을 정확히 표시하는 일이다.

사람은 연령에 무관하게 질병, 사고 등 여러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심장혈액순환정지에 따라 사망진단이 확인된다. 최종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죽음은 신체의 모든 세포가 죽은 며칠 후에나 들어선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계속 자라며, 어떠한 기관은 적어도 이러한 초기의 단계에서는 아직 살아있어 기능을 유지하므로 이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생명체 및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종말로 이해된다. 기능의 통일체로서 유기체는 뇌 전체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며, 돌이킬 수 없는 뇌기능의 정지는 명백한 죽음의 표시로서 평가된다.

사망시간의 확정은 어느 정도 임의적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생물학적인 생명의 표시가 모든 신체의 조직에서 최종적으로 멈춤으로서 끝나는 죽음의 과정 중에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 죽음의 시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죽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인공호흡의 실시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다시 말해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응급조치를 중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사망시간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식에 적합한 아직 기능하고 있는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아주 정확한 사망시간의 확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질병 진행과정의 어느 시점부터 하나의 인간이 죽었다고 사망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시급해진 것이다.

죽음을 확인하는 일은 예전에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를 실제의 사망시간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폐소생술과 개흉심장외과술로 인해 이러한 명료한 확인은 더 이상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 발생한 경우나 혹은 개흉심장외과술에서 유도된 심장박동정지인 상태일지라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인공으로 호흡과 순환기작용이 유지된다면, 전체로서의 한 사람의 죽음은 저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달리 유지될 수 없어 심장사 이후 몇 분 안에 뇌사로 필히 이어지는 경우에만 심장사는 죽음과 동일시된다. 이와 반대로 인공 심폐소생조치가 너무 늦었거나 뇌기능의 상실이 호흡순환 정지의 일차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 뇌기능을 소생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의학의 발전을 통해 뇌 이외 다른 기관들의 생명이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대한 문제가 현대의학에 발생되었다. 즉 어떠한 신체 기관이 보다 근본적인 것 이어서, 그 손실이 곧 전체로서의 유기체의 죽음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960년대 말 세계 의학계에서는 인공호흡이나 인공영양공급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코마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뇌사라고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환자들에게 부착된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구를 다른 중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장기를 적출하려면, 결정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뇌사를 죽음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이의(異意)없는 뇌사판정을 위한 기준이 정착되었으며 그간 많은 나라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유족이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뇌사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뇌사를 정확히 죽음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장기적출을 하는 일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동의했거나 유족에 의한 동의가 있을지라도 살인행위이므로 현행법은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 2.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육신의 존엄성과 자기동일성은 인간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념이다. 인간은 곧 육신이며 육신을 지니고 있다. 육신은 나와 세계를 이어주며 나를 위해 세계를 정돈시킨다. 육신으로서의 나는 세계에 관심을 보이며 세계 속에서 종사한다. 육신은 자아의식과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현재 나의 상황이며, 인식은 곧 적응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철학적 문제제기는 보통 공공 논의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임종에 가까운 인간 생명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예외가 되고 있다. 말기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분

아뿐 아니라 정치와 다양한 마스크에서도 침예한 대립을 보이며 논의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자율적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의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권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처분권이 유래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는 제3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한다.<sup>5)</sup>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은 합법적이며, 투명하며, 감독 받으며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도덕적 합의이다. 죽음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인간에 관해 살아도 된다는 것과 살아야 한다는 것, 죽어도 된다는 것과 죽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근본적인 결정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삶이 없는 인간다운 죽음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마지못해 죽음과 직면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생의 중국이라기보다는 모든 생의 국면과 결정에 동참하는 생의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 따로 특별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든 죽을 만큼 충분한 연령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 1) 자살의 문제

유명인사의 자살은 때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살은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타부처럼 여겨질 뿐이며, 주변사람이나 가족의 자살을 통해 실제로 자신과 밀접히 관련된 경우에만 비로소 가까이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생명의 총력에서 비롯된 영웅적 고독으로 향한 죽음의 결단으로서의 자살은 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의 진행 결과로 인해 죽음이 해결책으로 환영받고 요청되는 경우도 점점 빈번해질 것이다.

자살이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된다.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 절망에 이르러 죽음이라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지 사람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그리하여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어쩌면 자살한 당사자를 괴롭혔을 질환에 대해 추정해보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환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짐작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의 자살사건이 보도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당혹, 이해와 거부 형태로 반응한다. 요즈음처럼 빈번히 자살이 보도되는 우리 사회는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진지한 심층 분석이 요청되기도 한다. 자살 원인이 대부분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것으로 규명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얼마나 비인간적 물질지상주의를 표방하는가 짐작케 한다.

### (1) 자살의 정의

자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경우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하겠다. 자살은 아주 다양한 동기에서 실행된다. 분신자살처럼 정치적 의도에서 행한 자살이나 윤리적 책임에서 행한 자살은 해결책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의 자살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자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종교적 교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코란이나 탈무드에서는 자살을 죄악이라고 보고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도 자살을 죄악으로 여겨왔다.

5) N. Hoerster, *Sterbehilfe im saekularen Staat*, Frankfurt a. M. 1998.

보통 자살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자유롭거나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형태를 선택하여 적극적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실행하지만, 자살 수행의 시점에는 보통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의미의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시점에 그 사람은 임의로 지배할 수 없는 내적인 강박, 불안 혹은 환상에 빠져있다. 자살자에게는 탈출구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므로, 그에게 있어 단 하나의 선택 가능성은 죽음뿐인 것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살기도보다 실제로 자살을 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기도가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빈도도 높아진다.<sup>6)</sup>

슈텅엘의 정의에 따르면, 자살은 “한정된 짧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자행된 자해(自害)이며, 이 행위를 할 당시 당사자 자신은 그 후에 살아남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sup>7)</sup> 크라이트만의 정의에 의하면 자살기도는 “환자 스스로가 주도하고 원했던 행위이며 자해하거나 혹은 처방전이나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약을 먹고 그것이 약물학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실행한 행위”<sup>8)</sup>이다.

## (2) 자살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살행위는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을 어떻게 보며, 다른 이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자신의 혹은 타인의 기대에 만일 내가 부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내가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내 자존심이 손상되는가? 자살은 완전한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에 의해 실행되는 자유로운 죽음이 아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의지로 모든 면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되어 있으며, 쫓기고 있다고 느끼며,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스스로 이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초기의 그리스도교 문화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살해금지를 자살에까지 확장시켰으며, 그것은 천여 년 동안 여전히 유효한 그리스도교 전통이 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하다. 칸트는 이에 대한 세속적인 옹호자였다. 자살의 경우 충돌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도덕 원칙은 생명의 신성함과 자율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율원칙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도대체 자살을 도덕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서 자율은 다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 개인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결정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 우리 자신에 관한 처분권이라는 의미에서 자율인 것이다.

칸트 이후 자율의 개념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보편적으로 유효한 도덕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정을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는가 숙고해야

6) Th. Bronisch, *Der Suizid. Ursachen-Warnsignale-Prävention*, Muenchen 1996, 11 쪽

7) 같은 곳.

8) 같은 곳.

함을 뜻한다. 자율의 한계는 다른 사람들의 자율의 존중에 있다. 자기 결정과 자율은 보편적으로 유효한 법칙을 자신에게 부여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너 스스로 그것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만 행동하라”고 주장한다.<sup>9)</sup>

본혜퍼는 인간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자유다. 본혜퍼에 따르면 하느님만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자율을 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sup>10)</sup> 자살은 의미 없이 되어버린 생명에 마지막으로 인간적 의미를 주고자 하는 한 인간의 시도이다.<sup>11)</sup>

어떤 사람이 “자유의 표시로서의 자살”을 실행하는 경우 상황윤리에 입각해 평가하자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해칠 경우에만 비난받을 것이라고 기독교 신학자 플레처는 주장한다.<sup>12)</sup> 인간에게 생명이 그 자체 목적을 갖지 않고, 다른 가치들보다 하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스러움”이 아니라, 생명의 “질”이 윤리적 평가의 기준일 것이다.

반면 기독교 신학자 아이바흐에 따르면, 생명을 주신 신만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도적인 생명의 단축은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살해금지도 사랑의 계명과 연관된 것이므로 극단적인 경우에 자비에서 행하는 살해를 윤리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sup>13)</sup>

가톨릭 윤리의 견지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항거할 수 없는 모든 외형적 가능성의 종말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최고의 절정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근거를 신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 총체적 자기 임의권에 대한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의도된 적극적 생명단축은 배제되나, 인간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죽음에의 도움 형태는 반대하지 않는다.<sup>14)</sup>

가톨릭 의학윤리학자 스포르켄의 견해에 의하면 생명을 돕기 위해 죽음을 돕는 허용되는 안락사 형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기단계의 환자의 경우 생명유지조치를 포기하는 것은 죽음을 위한 도움의 형태로서 중요하고 현실적이다.<sup>15)</sup>

세속적인 윤리에서는 각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생명에 관한 결정권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공리주의적으로 관찰하면 불치병 환자의 자살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각자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자율은 있는가. 숙고된 혹은 합리적인 자살의 기준은 있

9)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421.

10) D. Bonhoeffer, *Ethik*, Hrsg., I. Toedt, H.E. Toedt, E. Feil, C. Green, Muenchen 1992, 195 쪽

11) 같은 곳, 193쪽.

12) J. Fletcher, “In Verteidigung des Suizid”,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233-244쪽.

13) U. Eibach, “Thesen zur Diskussion um die sogenannte Euthanasie”,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244-249쪽.

14) A. Auer, “Das Recht des Menschen auf einen natuerlichen Tod aus der Sicht einer theologischen Ethik”,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250-260 쪽

15) P. Sporken, “Euthanasie im Rahmen de Lebens- und Sterbehilfe”,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271-284쪽.

는가. 고전적 공리주의의 기준으로 고통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암환자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무엇이 합리적인 결정인가는 아주 불분명하다. “현명한 결단”으로서의 자살은 가능한가.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무엇이 현명한 태도인가. 감정적 결정과는 다른 냉철한 결정인가? 숙고한 결정인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 것인가?

자기 생명을 평가하는 일은 일반적 상식을 초월해 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 개념의 합리성, 이를테면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는 이상의 것이 요청된다. 자살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살자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를 규명하는 데 윤리를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합리적 자살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삼자가 자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는 그가 잠재적인 자살자의 주관적 상태와 동기를 잘 아는가 모르는데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그를 도와야 한다는 두 가지의 도덕 원칙이 상충된다.

자살을 방해함이 자살자를 최선으로 돕는 것인지 여부를 제삼자의 관점에서 묻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정당화 문제가 발생한다. 숙고된 자살의 기준은 자살 결정이 얼마나 깊이 혹은 얼마나 피상적으로 그 사람의 중심 사상과 감정에 기인한 것인지, 알맞은 그의 가치체계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자살의 윤리는 보다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율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개인의 결정능력”의 기준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자살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자살에 성공한 사람은 범죄자인 동시에 희생자이며 동일한 인물이므로, 자살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 (3) 자살에 대한 도덕적 논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값진 선물인 생명이 경시되거나 말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입장이지만, 흠은 자살에 관한 에세이<sup>16)</sup>에서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서도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맺는다. 만약 하느님이 전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면 자살도 하느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하거나 자연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자살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과 생명연장 조치도 자연에 반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자살이 반드시 생명에 대한 경이의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고통을 겪는 문제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이지 생명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명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권태가 보통은 자살에로의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염세주의로 인해 자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자기구제의 적당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칸트의 윤리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의무는 자기보존이다. 임의적 자해는 자살이며, 범죄이다. 따라서 자살의 금지는 중요하다.<sup>17)</sup> 칸트의 경우 본질적으로 생명의 경외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의 생활기반에 대한 존중이 문제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자살이 자신을 도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기만에 굴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16) D. Hume, *Essays on Suicide and the Immorality of the Soul*, Thoemmes Press 1992.

17) 칸트는 총체를 구성하는 장기를 회사하거나, 파는 행위 혹은 가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거세시키는 행위도 부분적 자살로 간주한다.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Tugendlehre*, A 73.

사람 자신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도덕을 가능하게 하는 장본인을 말살한다. 칸트의 주장은 자살이 자연에 위배한다는 사실 뿐 아니라 순수하고 완전한 자유의지가 결핍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칸트는 다양한 차원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완전한 자유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독일의 어떤 큰 병원의 응급실에 극약을 먹고 자살하려 했던 80세의 한 노인이 실려왔다. 다음 몇 일 동안 간호사들과의 대화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노인은 늙어서 점점 노쇠해가는 자신의 생명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 이해심이 많은 간호사와의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관이 나치 시대의 사고방식에 유래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결과 그 환자는 자신을 결함 있고 쓸모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무용한 삶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개념과 그로 인해 획일적으로 된 가치관은 그리스도교의 생명관과 대치된다. 환자, 사고로 인한 불구자, 장애인, 노인 모두가 성서 신학적 의미에서는 하나의 완벽한 인간이며 완전한 가치를 지니는 생명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한 생명의 개념에 따르면 어떠한 생명도 의미 없거나 쓸모 없어서 자살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일은 없다.

### 3. 현대인에 있어 죽음의 의미

죽음은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본질적인 사건이며,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고 겪어야 하는 문자 그대로 모든 생명체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삶으로부터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의 지평에 있으며, 이 지평의 건너 피안의 세계, 죽음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빗장이 채워진 폐쇄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세계로 돌아온 일이 없다.

옛날이나 다름없이 현대의 인간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죽은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또한 사후세계가 있더라도 홀로 미지의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서글프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고통 없이 편하게 짧은 시간에 죽는 것,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는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불치병 환자들이나 노인들도 인생을 정리하고 죽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희망 때문에 가족들은 가능하면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고 위로한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은 부모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중환자에게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내주는 일, 즉 그의 불안, 근심, 두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마지막의 최대 선물이다. 그러나 잘못된 위로는 금물이다. 삶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도 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안간힘을 다해 연기시키려 하는 것은 부질없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가 있다. 태어나는 것도, 죽음도 각각 그 시기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집에서 보내기 원하나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가족들은 임종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막대한 부담에 접해 두려움을 갖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대가족의 해체로 인해 예전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죽음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며, 일상 생활영역 밖으로 추방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익명으로 죽어간다.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홀로 남아 혹은 누군가가 주변에 있더라도 외롭게 죽어간다.<sup>18)</sup>

종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구원을 약속하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로 갈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마음에 평온을 준다.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제시해주고 그러한 세상에서 축복 받으며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나이가 들수록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좋다”<sup>19)</sup>며 칸트는 신비의 가치를 긍정한다.

인간은 불안하며, 항시 다른 것, 새로운 것을 향해 손을 내민다. 종교는 인간에게 죽음을 준비시킨다. 인간은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며, 부자유스럽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간의 현재 상태는 불만족스러우며,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하며, 불행하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인간이 진정한 고향으로부터 떠나 낯선 곳에서 살기 때문이다. 존재의 의미는 종말에 가서 완성된다. 커다란 비밀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신앙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죽음을 달리 맞이할 수 있다.



18) 현대에는 과거보다 호상과 흉상의 구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 객사나 사고사 등이 전처럼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근대에는 병원에서 죽는 것조차 객사라 하여 죽을 때는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임종이 가까우면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특히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 오히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해도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옮겨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90년대 중반에는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63.2%,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25.2%였으나 점차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2000년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19) I. Kant, “Reflexionen zur Metaphysik”, Nr. 4996, in: *Kants handschriftlicher Nachlass*, Bd. V, Berlin 1928, 55 쪽

## 참고문헌

- A. Auer, "Das Recht des Menschen auf einen natuerlichen Tod aus der Sicht einer theologischen Ethik",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S. 250-260
- D. Bonhoeffer, *Ethik*, Hrsg., I. Toedt, H.E. Toedt, E. Feil, C. Green, Muenchen 1992
- Th. Bronisch, *Der Suizid. Ursachen-Warnsignale-Praevention*, Muenchen 1996
- Diogenes Laertius, *Leben und Meinungen beruehmter Philosophen*, X. 124 Hamburg 1990
- U. Eibach, "Thesen zur Diskussion um die sogenannte Euthanasie",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S. 244-249
- J. Fletcher, "In Verteidigung des Suizid",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S. 233-244
- S. Freud, *Zeitgemaesses ueber Krieg und Tod*, in: ders., *Gesammelte Werke*, Bd. 10, Frankfurt a. M. 1969, S. 323-355
- N. Hoerster, *Sterbehilfe im saekularen Staat*, Frankfurt a. M. 1998
- D. Hume, *Essays on Suicide and the Immorality of the Soul*, Thoemmes Press 1992
-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1)
- I. Kant, "Reflexionen zur Metaphysik", Nr. 4996, in: *Kants handschriftlicher Nachlass*, Bd. V, Berlin 1928
-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Tugendlehre
-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A.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Saemtl. Werke, ed. Huebscher, 2. Aufl., Wiesbaden, 1946-1950. Bd. 6
- P. Sporken, "Euthanasie im Rahmen de Lebens- und Sterbehilfe", in: A. Eser hrsg. *Suizid und Euthanasie als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Problem*, Stuttgart 1976
- Nivelle, Alexander, *Kunst und Dichtungstheorien zwischen Aufklärung und Klassik*, Berlin 1971.

## The meaning of death and its moral problems for modern human being

In-Hoe, Ku

Sooner or later everybody dies. Death is a word that we know and fear, but what exactly does the word death mean to you? The end of life? The end of time? The end of hope? For some people, death is the worse of the worse thing of all.

The view of death as loss is linked to fear and anxiety about death. Concern about death and dying increases across aging. Loss can also lead to growth. Awareness of death can help define and give meaning to daily life.

As we lost our familiarity with death, and the less we live with death, the more we lost our sense of how to deal with death. Death and Life belong together. Death gives life's process a profound meaning and vitality. It has a positive, affirmative role, for it is essential to any realization of selfhood and life. Death is a key to self-understanding. It is an intellectual and moral revolution that helps us define human nature.

Death is an intrinsic part of life; it arises out of existence itself. It belongs to life. Death belongs to the very being of man. It is not something that is added on at the last stages of man's life.

**Key Word** the meaning of death, the end of life, the fear of death, human death, the problem of suicide

к с і